

## 간호학을 위한 자연과학에의 대안\*

이 자 형 역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서론

간호학에서 증대하는 절박한 문제는 한편으로는 연구에 기초한 실제와 엄격한 평가 절차를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로 인본주의적이며 개체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는 명백하게 모순되는 요구이다. 전자는 간호가 전통적 실험연구방법으로 확인되고 유추되는 과학적 방법에 적합한 대상물 환동에 포괄한다는 신념에 의한다. 이와 관련되는 질병-치유 파라다임과는 아주 상이한 대상자-제공자 관계, 돌봄에 실행, 비과학적인 혁신적 치료의 개방이 기저가 되는 전체적, 성장 중심적 견지에서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건강-간호 파라다임이 맞서고 있다. 이를 간호가 근대 열망하고 있다. 요약하면 접근법을 가계론적, 분석적이고 반응적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적, 전체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질병 과정에, 다른 한쪽은 인간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전자의 접근에 대한 반격으로 인한 것이다.

사회학자 Joan Busfield는 “의학은 인간 기능의 기계론적인 개념을 갖는다...그 결과 개개인을 인간 전체의 관점으로 보기 어렵고, 인본주의적 접근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고 논평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간호사는 두 파라다임 사이에서 분열되는 것을 느끼게 되며 Jean Watson은 “두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이끌수 있는 교차점... 한 방향을 전통적 의과학의

독특한 인식론이고, 다른 한 방향은 간호를 인간과학의 다른 인식론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하였다. 후단에 두번째 방향의 철학적 기초를 간략히 고찰하고자하며 이것은 현상학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대안을 재고하므로써 추구된다.

## 철학적 배경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연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규명하는 것은 20세기 초두에 독일의 신칸트 학교에 사회철학자들에 의한 실증 철학 전반에 걸친 거부에서 유래한다. 역사를 통하여 철학자들은 유사한 평을 하였으나 Dilthey, Windelband와 Rickert등을 주축으로 하는 이들 그룹은 Comte의 실증철학에 용하여 처음에는 사회과학기저에 광범위한 접합연결을 시도하였다.

Dilthey는 사적-사회적 실체를 해설하는데 관계된 모든 과학을 언급하는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en”이란 신어를 만들어 내었고, 심리학이 그러한 진취적인 정신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 심리학은 다소 상식적인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실존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실제적인 학문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여기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로 대치할 수 있으며 이들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단순한 물리적 객체사이의 관계의 산물로서 보기보다는 주관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인간 의식의 산물로 본다.

\* Int. T. Nurs. stud. vol 27 No 3. pp 187-198, 1990.

이들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는 Dilthey가 '상상력에 의한 개조'로서 기술한 인간, 의식의 산물에 의한 해석 절차를 기초로 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이 해석 절차는 심리학의 새로운 방법을 성립시켰다.

Windelband 역시 '생활 심리학'이 실증주의적 실험적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하고자 시도하는 nomothetic 과학과 개체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idiographic 학문 분야간에 특성을 제정하였다. 학문 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은 대단히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두가지 선택적 견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직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Midgley는 사회과학의 특수사례 관점을 지지하며 인간 본성의 연구는 어떤 단일 방법이나 범칙으로 축소할 수 없는 의인할 여지없는 예술임을 주장하는 반면 Silverstein은 두 접근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간호, 건강과 질병같은 인간과 사회적 사건은 그 특성답게 idiographic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며, Sarvimaki는 간호 실제에 있어서의 일반 법칙에 의한 사고와 예측에 난점을 지적하였다. Sarvimaki는 간호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독특한 개체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항상 독특한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기술하였다. 김의 이론에서는 이론적 분석의 두 별개의 방식 즉 하나는 전체적이고 하나는 개별적인 방법을 기저로한 idiographic과 nomothetic 접근법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칸트주의자 역시 관찰을 통해 얻은 객관적 지식에 반대되는 감정이입과 창의력을 통해 얻은 이해를 의미하는 '이해하다 Verstehen'란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간호사의 이해의 일종이 간호사-환자 관계로 확립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Windelband의 견해는 Rickert에 의해 정련되었고, 그 후 실증주의 방법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견지에서 'Verstehen'을 분석한 Weber에게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은 동인

에 대한 개개인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Weber는 이러한 요구를 인과의 설명을 위한 자연과학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을 행하는 동안에 그는 합리적, 절대적, 직접적 그리고 설명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Verstehen'의 여러 유형을 구별하였다. 그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가 특정한 행동의 기초를 구성한다는 데 따라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한 기초는 행동의 원인적 설명으로 고려되었고 실험·관찰에 의한 조사가 요구된다. 물론 동기를 원인으로 동일시하는 견해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여전히 토론을 자극하고 있다.

실증주의에 반대론자는 자연과학의 방법은 사회현상에서 개인의 의미를 제외 시킨다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제외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과학적' 심리학은 정상과 일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래에 까지 거의 논하지 않았다. 심리학이 측정과 조작을 하도록 조작적 정의가 강요되는 것 같이 쟁점이 마주치거나 조사될 때 개인의 의미나 경험이 현저한 특색을 이룬다. 건강, 질병과 관련된 복합적인 경험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김의 간호이론의 주된 방법론적 구성요소를 형성하며 이것이 관심을 갖는 유사한 비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iorgi는 전통적 심리학은 그 내용이 방법에 의해 지시되며 심리적 실존의 대부분의 변별 특징 즉 경험을 배제되었고 이것은 주체의 의미있는 탐구를 배제시킨다고 이들 결점을 시사하였다. 사실 많은 철학자 특히 P.F. Strawson은 대부분의 인간행동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해보다는 변화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Whilst Liam Hudson은 심리학에서의 nomothetic 접근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Strawson은 인간에 대한 과학의 객관적 태도는 개인의 이해에 반대됨을 주장하였다. 과학이 탐구방법에 적응하도록 강요되는 실증주의 원리를 완고하게 고수하는 한 심리학의 모든 경험적 연구가 비윤리적이게 하는 원인이 되

는것은 의심할 바 없다. 대부분의 행동 심리학자들이 강력히 부정한다하더라도 색관적 태도는 타인을 인간으로서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 같이 보인다.

심리학에 관한 실증주의 접근은 그 고유한 방식만이 아니고, 세계와 그 현상을 해석하는데 개인적 신념과 의미의 역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연구과제와 쟁점으로 증가하였다. 이점은 점점 심오하게 개인적 의미와 그들의 사회적 맥락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 발전에서의 실증주의 비평에 영향하였다. 그 증거는 개인 신념의 원인적 의미와 인간 행동의 해석에서의 그 역할에 주의를 두는 인지심리학의 출현이다. 사회심리학도 역시 인간 내부 보다는 개인간의 매일의 삶의 경험을 탐구하는 비슷한 경로에 가지도록지기 시작하였다. Rom Harré 같이 선도하는 심리학자는 수년간 광공연히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적 그리고 연구자세를 고수하였고 심리학적 사고의 새로운 방법의 발전에 의심할 여지없는 기초 형태이루었다. 사회학 이론에서 후실증주의는 Frankfurt 학교에서 영향하여 특히 Gadamer와 Habermas에 의해서 발전하였고 이에 의하여 현상학적 사회학이 Schutz에 의해 발전되었고 민족학방법학자들은 Garfinkel이 선두에 섰다. Giddens는 객관적 실증적 기능주의와 주관적 비판적 해석학의 두 양극성의 대안을 제공하는 사회적 이론의 명백한 설명은 제공하였다.

### 현상학적 영향

인간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의 발전은 Franz Brentano의 '계획적 대상' 심리학에서 기원하며 그의 관념은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운동의 발기인이라고 하는 그의 학생 Edmund Husserl이 영향 받았다. Husserl의 철학도 또한 그의 학문적 보조자인 Martin Heidegger가 제시하는 실존주의에 강하게 영향받았다. 현상학은 과학적 경험의 부적합성에 의하여 인간의 경험으로 방향을 잡

을 때 발전하였다. Husserl은 의식을 직접 탐구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참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는 '획기적 epoche'방법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Decartes에 의해 채택된 체계적인 의혹의 회상법으로 1922년 런던대학에서 Husserl에 의해 '데카르트의 명상 Cartesian Meditation'이란 주제로 강의되었다.

Husserlian 현상학은 현상학적 사회학의 실용사로 널리 알려진 Alfred Schutz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론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갖추었다. 그는 자기분식 방법을 소생시키기를 원치 않았으나 경험적 형태에서의 주관간의 이해에는 관심을 가졌다. 그의 생각은 Berger와 Luckman이 사회학의 지식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고 Harold Garfinkel이 주도하는 민족학방법학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Bilton등은 실제 실험에 의해 그의 현상학적 논의에 진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실험은 조심스러운 검사가 관련되며 의미의 전달을 이용하여 학자는 그가 이해하시나 설명하고자 찾는 어떤 상황에도 피할 수 없이 참여하여 조사한다. Garfinkel은 사회과학자의 임무를 어떤 특정 사회형태를 변화하고자하는 행동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정의 일반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비인간화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현상을 객관화하는 노력을 중시한다.

실존적-현상학적 인식론은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으로 특성지어온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부정한다. 인간 경험의 구조는 심리학적 분석의 주된 내용인 관계로 대치되고 단지 무엇이 순수한 현상으로 드러내지는지에 주의를 부여한다.

Acausality의 원리는 인간은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실체를 분별하기 보다는 따라서 행동하고 그들 환경이 그들의 특성을 변화하는데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관적 객관적 지각으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며 Giddens는 이 상호작용의 결과물 '이중 해석학 double hermeneutic'으로 언급하였다. 게슈탈트 운동의 선구자인 Fritz Perls의

자료에서는 그 기초가 자신의 바로 지금의 경험이고, 기능의 원인 모델은 완전히 제외된다.

## 인간의 영향

인본주의적인 운동은 이상에서 요약한 현상학적, 실존적 견해로부터 이론적 지지를 받으며 파생되었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들 대부분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일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며, 개인을 전후관계가 없고 일마간 반응하는 개체로서 지각하는 인공적 실험상황은 경멸한다. 결국 그들은 강성한 반실증주의자이고 대부분 '과학적 심리학'을 하찮고 평범하고 부적절하며 비인간화된 것으로 본다. Schaffer는 그의 입문서에서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a) 현상학적이고 기점은 의식있는 경험이다. b) 인간의 전체성과 완전성을 주장한다. c) 명백한 한계기 인간 존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유와 자율성을 보유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d) 반환원적이다. e) 인간의 본성은 결코 완전히 규명될 수 없음을 믿는다.

Schaffer의 철학적 근원은 Husserl의 현상학과 Heidegger와 Sartre의 실존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자아실현의 개념으로 간호교육자, 실무자들에게 친밀감이 있는 Maslow가 착상한 인간의 meta-needs와 meta-pathologies로 잘 설명되고 있다. 또한 Carl Rogers는 학습에 대하여 학생중심의 접근을 체계화했고 간호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주관적 경험과 인간행동의 반응보다는 practivity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간호접근에 구체화 되었고 그의 대상자 중심의 치료와 유사하다.

## 간호학에서의 반실증주의의 영향(총격)

간호이론. 완전한 이론이 아님에도 Travé-lbee의 접근은 간호사와 환자 양측을 인간답게 하고자하는 급진적이고도 선견지명이 있는 시

도였다. 이것은 '자신을 치료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의를 기울였으며 인간을 전체적 관점의 배경에서 보고자 했다. 이 문구는 이제 간호사에게 친숙하게 그녀의 인본주의적 간호의 꿈은 이제 보다 실체적이다.

Jean Watson의 이론 역시 단일성으로서의 인간관에 선두사이며, 인본주의적 탐구의 전 범위로 부터 끌어낸 통찰력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이론의 중심은 '인간과학'의 관념의 역작으로 Amadeo Giorgi와 그 동료들이 기술하였다. 이 인간과학의 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인간의 자유, 선택과 책임의 철학
- 전체론의 생물학과 심리학
- 경험주의 뿐 아니라 미학, 윤리적 가치적 관과 과정 발견의 진전을 허용하는 인식론
- 시간과 공간의 존재론
- 인간간의 사정, 과정과 관계의 배경
- 열린 과학적 세계관

Watson은 이것을 전통적 의학의 유물론적 실증주의와 병행하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느꼈다. 그녀는 간호학의 '인간과학'과 의학의 '차연과학'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서가 아닌 연속신상의 두 다른 갈로서서 간주하였다.

Watson은 현상학적 분류 방법이나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Giorgi, Alexander와 Marton에 의해 개발된 현상학적 방법을 성공적으로 이용하였다. Merleau-pony의 지각을 기점으로 삼작하여 그녀는 초월적 현상학의 방법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지는 본질을 반영하는 상황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언어의 경험적 유의성과 그시적 표현에 집중한다. 또한 해석학적 사회이론과 현상학적 사회학 특히 민족학 방법론의 분석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반영해준다. Watson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가운데 단지 한 사례의 슬픔과 상실 경험을 어렵듯이 예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상황 특히 복잡적이고 도시화된 것에 전환하기 위해 상상의 꽤 많은 도약이 방법에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실제적 도구로서 현상학적 epoche를 탐구하고

자한 용기있는 시도를 보아야하며 개혁에 자극제였다.

Paterson과 Zderad역시 인본주의적 간호이론에 실존적-현상학적접근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경험을 이론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규명하였고 간호의 특성을 주관간의 교류라는 용어로 기술하였다. 유사하게 Parse는 실증주의 이후 사회학 이론에 의해 구체화된 많은 관념으로 간호학의 실존주의 이론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존재로서의 의미를 '다차원적 구조'와 '상호 창조하는 실재'로 언급하고 becoming, imaging, situated freedom과 manenvironment relatedness같은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이 접근은 불명료한 표현법과 신조어로 인해 근본이 침해되었는데 이 문제는 독자가 단일 이들 언어와 실존주의 현상학자의 특유한 개념적지구 또한 미국의 간호학자들에 진숙하지 못하면 더 하게된다.

Sarvimaki는 Habermas의 활동의 유형학을 이용하여 간호이론은 '의사소통 활동'으로 포했으며 의사소통을 전략상의 활동과 수단적 활동으로 부터 구분하였다. 무엇이 의사소통 형태를 전략상 형태로 부터 구별하는가 하는 점을 반응에 대해서 어떤 행위자도 고정되거나 신임권을 가지지않으며... 심공지향적이지 않고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한 태도-의사소통 태도'를 미리 예상하였다. 이것은 지배보다는 상호 이해, 조정과 공동작업을 위한 노력이라고 그녀는 언급했다. 간호활동은 의사소통 태도로 기초되고 대상자 자신의 건강상황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소망, 목표, 요구와 자원 등을 모든 간호활동을 위한 출발점으로 취한다. 건강상태의 변화를 Sarvimaki의 관찰원리에 기초하여 대상자 자신의 활동과 수행자와의 상호작용에서의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호실제를 위한 일반적 범칙의 조직화와 결과의 예측은 특히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특한 기체가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간호사와 독특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Sarvimaki는 그녀의 이론을 보다 자

세하게 설명하고자하나 현재는 제한되고 있다.

Sarvimaki의 연구는 간호이론에 사회적 행위의 실증주의 이후 철학개념을 통합시키고자 시도한 표본이다. 간호사는 해석학과 사회학 이론 발달을 계속 사정해야 한다. 간호학의 두가지 근거 즉 자연과학, 실증주의 의학의 근거와 현상학적, 실증주의 이후의 근거를 기초로 하는 이분법에 영향받으므로 이 전통적으로 반대되는 두진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가? 명백히 상반되는 인식론이 조화될 수 있는가? 그들은 같은 현상에 대한 관점의 대안인가 혹은 그들 각각의 별개 현상을 향하는 것인가? 이론가들은 그것이 사회적 연구의 대상인지, 우리 간호에 적절한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대안적 방법론은 같은 결과에 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기술하는 것인가 혹은 목적에 따른 각각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들은 불명료하나 제기해야만하는 질문이다. 이론가들은 실제에서 요구가 증가하는것을 고려하고 자연과학 인식론에 기초한 측정방법과 수량화가 부적절하며, 간호가 인간과정이라는 새로운 신념을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화시킬 수 있는가?

간호교육. 인본주의적 대안은 근래에 이르러 간호교육을 개조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많은 근거를 얻었다. 영국에서는 학습경험의 구성에 로저스이론 접근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본주의적 교육의 장·단점에 대한 조심스럽고 비판적있는 분석의 결과 이기보다는 이전에 실시했던것에 대한 불만의 반응으로서 해보게 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기저하는 철학적 가정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육방식이 대서양을 넘어 여러 이론가들의 큰 소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Gagne에서 Bruner, Rogers 그리고 Knowles에 이르는 빠른 이동을 들 수 있다. Jarvis가 문제점에 관해 재검토했고 Tennant는 보다 최근에 인본주의적 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확실히 영국의 간호교육에 인본주의 원리를 통한 현상학의 도입은 문제점으로 가득하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지만 교사에게 지배와 권위가 주어지는 전통적 교수법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특징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법령에서 부과하는 형식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이를 조화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임상경험에서 얻은 재충적 체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어렵다. 불린것을 학습의 기회나 변혁의 지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부정적 결과로, 주장은 공격적으로 오해되고 불일치를 불건강과 분열로 고려하는 것이 흔하다.

더욱이 법률적으로 교육체제가 완강하므로 개별적 학습전략, 자기 지향력 학습과정의 사용이 제한된다. 특수한 학습경험을 위한 학습 결과나 목표는 모든 학습경험의 자유, 개방과 예기할 수 없음이 제기되므로 인본주의 성인 학습의 발달을 방해한다. 교육실체가 학습경험의 측정의 면에서 보다 지배적인 것과 수량적 요구에 의해 널 위험한 교육방법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는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역할이 근거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교육적이고 추진적인 특성이 측정을 포함하는 실증주의 과학의 연구방법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할 것이다.

Burnard는 간호수행의 사정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극심한 행동주의와 인본주의에 균형을 잡는 '중앙 통로'로 불렀다. 그는 '은밀한 언어의 숲에서 몰두해 있는 것'과 한편으로 '행동주의로 강요 하는 것'을 규하도록 주의를 준다. 그는 각각의 통찰력의 종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도 다른 견지에 따라 같은 현상이 둘로 보이는것을 역설한다. 만약 다른 이론적 견지에서 같은 현상을 본다면 다른 이론의 기본 학설을 타협하지 않은 합성은 어렵다.

간호 실제. 이 글의 초점이 간호는 전체성이라는 한편으로 질병-회복 파라다임에 대한 대안은 확산되었고 의학직 전문기술과 전위는 장기간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자연과학의 철학과 방법론의 불만족이 대부분 명백해졌다. 또한 간호사-환자 관계를 치료적 구성요소를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제기된다. 현상 학자들은 인간행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현상을 조정하거나 지배하기보다는 이해 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인본주의적 대안을 위한 큰 문제이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사회적 통제기능과 관료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관념직/문화적 사회사조에도 아랑곳없이 어떻게 표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는 간호학 전반에 확장된다. 인본주의적 원칙을 어떻게 보건행정당국, 병원이나 지역사회부문같은-조직이 원활하고 체계적이며 통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개체의 요구와 개별적 접근이 경시되고 있는-서대한 조직에 조화일치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 의학의 실증주의 철학은 위협받으며 치료적 관신사가 대상자와 대상자의 경험과 대상자의 세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잠된 현상학적 접근의 징조가 증가된다. 간호 실무들이 이러한 변화에 직접 영향된다. 건강관리분야의 모든 부문은 인본주의적 상담기술을 필요로 하며 대상자의 영적요구를 규명하고 충족시켜야할 욕구가 만연해 있으며 입원환자 간호체계에 비인간적인 측면을 제거 해야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증거로 간호학교과서에 실존적-현상학을 다루고 전통적 자연과학의 질병 분류를 거부하고 대상자의 질병과 건강 경험에 주의를 두는 인간중심의 개념적 틀에서 생물학의 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 간호학에의 도전

간호학은 정치적 편의주의, 공중이나 대중매체의 의견등 다른 분야의 흥미에 의하거나 지적인 것을 간과하여 자신의 형태를 이루게 해서는 안된다. 사회학이론의 발전과 과학철학에 미추어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론을 확립하고 추구해야 하며 선택된 방향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Jean Watson이 간호학을 실증주의에 사로잡힌 자연과학 접근과 함된 전문직 자율성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전체성과 인간중심의 접근중에서 선

택하도록 요구된다고한 이후 4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도전에 우리는 얼마나 이르르고 있는가.

만약 간호학이 간호와 교육에 인본주의 철학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라면 철학 뿐 아니라 정치적 윤리적 그리고 다른 가치도 모두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치를 규명하고 용인하고 명료하게하고 인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실제 간호학이 오늘날 직면하는 큰 도전이며 이중 어떤 부분은 이미 진행되었다.

로얄대학의 소책자 'Position statement on Nursing'에서는 공정, 인간존중과 돌봄의 세가지 핵심 원리를 확인하여 보다 뛰어난 간호체계에 근기를 이루었고, 그 질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간호를 평가하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호의 개념을 인간 과정과 사회적 사건으로 볼 것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양질을 확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명료화의 과정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질적생활 측정, 수행지표와 간호수행의 질을 측정하는 것 같은 '측정도구'에 의해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 간호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장 혹은 양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는 측정에 근거하여 성공적으로 도전하는데 요구되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스스로 갖추어야한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된 실증주의 비판을 익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대안이나 비판 이후 방법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에 인본주의적 대안을 채택하는데는 개방성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언명에 따라 좌우되며, 간호사의 정치상황에 점차적인 출현으로 도움받을 수 있음에 주목 해야한다. Paulo Freire는 비판적 사회이론, 사회관례와 정치적 참여사이에 분할 할수 없는 관계를 하였는데 이것은 간호사로 하여금 정치에서 탈없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의사결정에서의 부력한 역할과 종속적인 사회적 위치를 알아차리게한 점이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각에 정치 참여를 전문적 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교육에 긴밀히 연결하므로써 고무되기를 기대한다.■